

탈 당 ,탈 단, 탈 대 방 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tdsc01@epochtimes.com

*탈당전화:001-416-361-9895, 001-702-873-1734

*탈당팩스:001-702-248-0599, 001-514-342-1023

*인터넷에 올라갈수 없는 사람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친다

제시: 국제직접전화가 통하지 않은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칠때 IP 전화로 쳐야 한다.(망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쳐넣어야 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쳐넣어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쳐넣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쳐넣어야 하고 렌통은 먼저 17911 를 쳐넣어야 하며 소령통[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쳐넣어야 한다.)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 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헤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혈기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한테 받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멀할 때 평안을 보증받을 수 있다!

44

길림성박해진상



진상을 찾을지어다

천지간은 망망하데 세인은 어 데로 갈 가
미혹 속에서 길을 모르는데 지남은 진상에 있네
빈부는 마찬가지라 큰 난은 피할 길 없네
그물에 열린 곳 있으니 빨리 진상을 찾을지어다

탈 당 ,탈 단, 탈 대 방 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

*전자우편으로 성명을 발표

tdsc01@epochtimes.com

*탈당전화:001-416-361-9895, 001-702-873-1734

*탈당팩스:001-702-248-0599, 001-514-342-1023

*인터넷에 올라갈수 없는 사람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친다

제시: 국제직접전화가 통하지 않은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칠때 IP 전화로 쳐야 한다.(망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쳐넣어야 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쳐넣어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쳐넣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이동은 먼저 17951 를 쳐넣어야 하고 렌통은 먼저 17911 를 쳐넣어야 하며 소령통[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쳐넣어야 한다.)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 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헤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혈기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한테 받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멀할 때 평안을 보증받을 수 있다!

44

길림성박해진상



진상을 찾을지어다

천지간은 망망하데 세인은 어 데로 갈 가
미혹 속에서 길을 모르는데 지남은 진상에 있네
빈부는 마찬가지라 큰 난은 피할 길 없네
그물에 열린 곳 있으니 빨리 진상을 찾을지어다

목 록

[시한수]	3
자비	
[길림성 최근 박해소식 종술]	4
[길림성 근래 감옥, 로교소, 간수소등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한 정황]	18
[길림성 근래 박해로 사망된 파룬궁 학원의 소식]	27
[악인 악행]	28
[원 길림성 성장 홍호가 보옹을 받다]	38
[하늘에는 눈이 보고 있다]	40
[『9평』 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42
[큰 난에서 탈출]	43
[탈당, 탈단, 탈대방법]	44

(본간 박해소식은 모두 명혜망에서 나온것이며 본기는 4월 26일부터 5월 9일사이 명혜망에 실린 길림성내의 전부 박해소식이다)

쏘련공산당의 해체가 주는 계시

만일 1991년 8월 이전에 그 누가 쏘련 공산당이 인차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꼭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9일,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공산당정권은 며칠사이에 해체되어 전 세계를 진감하였다.

[선을 권하는 시 한수]

큰 난에서 탈출

하늘이 중공을 멸함이 눈앞이니
당신에게 권하는 봐 탈당하여 큰난을 피할지어라
선악화복은 자신이 정하는 것으로
기연을 웃음거리로 여기지 말지어라
대법은 자비로워 구도하고 있나니
일념은 바로 미래를 선택하노라
먼저 미래가 있어야 후에 재부가 있고
재부가 있고 생명이 없으면 모든게 혀된 일이로다
남 아세아 해폭풍과 사스병은
하늘이 경시한것이니 기다리지만 말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하면
큰난이 올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리라

목 록

[시한수]	3
자비	
[길림성 최근 박해소식 종술]	4
[길림성 근래 감옥, 로교소, 간수소등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한 정황]	18
[길림성 근래 박해로 사망된 파룬궁 학원의 소식]	27
[악인 악행]	28
[원 길림성 성장 홍호가 보옹을 받다]	38
[하늘에는 눈이 보고 있다]	40
[『9평』 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42
[큰 난에서 탈출]	43
[탈당, 탈단, 탈대방법]	44

(본간 박해소식은 모두 명혜망에서 나온것이며 본기는 4월 26일부터 5월 9일사이 명혜망에 실린 길림성내의 전부 박해소식이다)

쏘련공산당의 해체가 주는 계시

만일 1991년 8월 이전에 그 누가 쏘련 공산당이 인차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꼭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9일,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공산당정권은 며칠사이에 해체되어 전 세계를 진감하였다.

[선을 권하는 시 한수]

큰 난에서 탈출

하늘이 중공을 멸함이 눈앞이니
당신에게 권하는 봐 탈당하여 큰난을 피할지어라
선악화복은 자신이 정하는 것으로
기연을 웃음거리로 여기지 말지어라
대법은 자비로워 구도하고 있나니
일념은 바로 미래를 선택하노라
먼저 미래가 있어야 후에 재부가 있고
재부가 있고 생명이 없으면 모든게 혀된 일이로다
남 아세아 해폭풍과 사스병은
하늘이 경시한것이니 기다리지만 말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기억하면
큰난이 올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리라

하북 모향 파출소소장이 한번은 어떤 사람이 그를 청해 밥을 먹을 때 술상에서 향정부와 파출소의 십여 명의 사람들앞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요》라고 말하였다. 옆의 사람이 《당신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잊지 마오, 자신의 전도에 영향 주지 마오.》라고 말하자 소장은 《우에서 파룬궁을 잡으라고 하는데 파룬궁은 다 좋은 사람들이요.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소!》라고 말하였다.

《9 평》 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9 평공산당》은 중공사당의 본질을 심각하게 폭로하여 중국에서 강대한 중공악당을 탈출하는 조류를 일으켰다. 2007년 6월 17일까지 이미 2292만에 달하는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을 통하여 중공의 당, 단, 대를 탈퇴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공당군 고충내의 당원들이 포함된다.



42

자 비

당신은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한테
진상을 알려주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더러 나와 같으라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당신의 신앙을 개변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그저 당신더러 사악한 당이 사람을 속이는
수단을 알게 하려는 것뿐이다
자비는 나더러 당신이 붉은 악마와 함께
재난을 당하는걸 차마 볼 수 없게 하였다
하늘이 이 붉은 악마를 멀하려 하니
신은 나더러 이 곳을 구도하라 하였다.
자비는 나더러 당신이 붉은 악마와 함께
재난을 당하는걸 차마 볼 수 없게 하였다.

3

하북 모향 파출소소장이 한번은 어떤 사람이 그를 청해 밥을 먹을 때 술상에서 향정부와 파출소의 십여 명의 사람들앞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요》라고 말하였다. 옆의 사람이 《당신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잊지 마오, 자신의 전도에 영향 주지 마오.》라고 말하자 소장은 《우에서 파룬궁을 잡으라고 하는데 파룬궁은 다 좋은 사람들이요.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않겠소!》라고 말하였다.

《9 평》 이 천만을 넘는 퇴당 물결을 일으키다

《9 평공산당》은 중공사당의 본질을 심각하게 폭로하여 중국에서 강대한 중공악당을 탈출하는 조류를 일으켰다. 2007년 6월 17일까지 이미 2292만에 달하는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을 통하여 중공의 당, 단, 대를 탈퇴하였는데 그 중에는 중공당군 고충내의 당원들이 포함된다.



42

자 비

당신은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한테
진상을 알려주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더러 나와 같으라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당신의 신앙을 개변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그저 당신더러 사악한 당이 사람을 속이는
수단을 알게 하려는 것뿐이다
자비는 나더러 당신이 붉은 악마와 함께
재난을 당하는걸 차마 볼 수 없게 하였다
하늘이 이 붉은 악마를 멀하려 하니
신은 나더러 이 곳을 구도하라 하였다.
자비는 나더러 당신이 붉은 악마와 함께
재난을 당하는걸 차마 볼 수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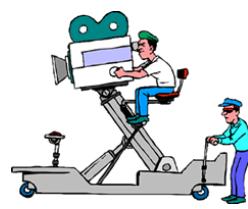
3

길림성 최근 박해소식 종술

길림성 안도현 여러명의 대법제자가 악경들에게 랍치당하다

길림성 안도현 이도백하 대법제자 주아진(朱雅珍)、주아선(朱雅仙)、주아평(朱雅萍)、리락우(李乐友) 그리고 삼도(三道) 파룬궁학원 양건화(杨建华) 등은 4월 20일 오후 5~6 시좌우 집에서 안도현 국보대대、안도현 송강공안분국의 악경들에게 랍치당하여 지금 비법적으로 길림성 안도현 간수소에 갇혀있다.

리락우는 랍치당하는 과정에 시종 경찰들의 무리 한 랍치에 배합하지 않았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외쳤다. 네 명의 경찰이 그를 강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 넣었다. 리락우가 <<파룬따파는 좋다! 경찰이 좋은 사람을 붙잡는다!>>고 소리치자 자신의 악행이 폭로될까 두려워 한 키 크고 뚱뚱한 경찰이 주먹을 휘둘러 리락우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다가 리락우 안해의 손에 붙들려 악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외침소리를 듣고 분분히 달려나온 이웃들은



길림성 최근 박해소식 종술

길림성 안도현 여러명의 대법제자가 악경들에게 랍치당하다

길림성 안도현 이도백하 대법제자 주아진(朱雅珍)、주아선(朱雅仙)、주아평(朱雅萍)、리락우(李乐友) 그리고 삼도(三道) 파룬궁학원 양건화(杨建华) 등은 4월 20일 오후 5~6 시좌우 집에서 안도현 국보대대、안도현 송강공안분국의 악경들에게 랍치당하여 지금 비법적으로 길림성 안도현 간수소에 갇혀있다.

리락우는 랍치당하는 과정에 시종 경찰들의 무리 한 랍치에 배합하지 않았고 <<파룬따파는 좋다>>를 외쳤다. 네 명의 경찰이 그를 강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 넣었다. 리락우가 <<파룬따파는 좋다! 경찰이 좋은 사람을 붙잡는다!>>고 소리치자 자신의 악행이 폭로될까 두려워 한 키 크고 뚱뚱한 경찰이 주먹을 휘둘러 리락우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다가 리락우 안해의 손에 붙들려 악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외침소리를 듣고 분분히 달려나온 이웃들은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시끄럽다, 도깨비문관(鬼門关)을 지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경상적으로 대법재료를 찢으므로 하여 그녀의 손은 맥관염(脉管炎)에 걸렸는데 손가락은 썩어서 줄곧 상처가 아물지 못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잘라야



할 위험성이 있다 는것이 있다. 후에 경상적으로 열이 나고 반복적으로 입원해도 열이 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입원하였을때 화장실에 가면서 또 다리를 분질러 병원을 옮겨 다리 있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두주일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말로는 혈관이 이미 막혀 버리고 근육이 위축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밥을 먹기조차 곤란하여 참으로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였다. 십만여원의 치료비를 쓰고도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는데 2007년 4월 10일에 집에서 죽었다. 림종시 사람들은 그녀의 처참한 비명소리를 들을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법을 박해함으로 하여 받은 현세현보(现世现报)이다!

파출소 소장이 각성하여 두려움없이 진실을 말하다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시끄럽다, 도깨비문관(鬼門关)을 지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경상적으로 대법재료를 찢으므로 하여 그녀의 손은 맥관염(脉管炎)에 걸렸는데 손가락은 썩어서 줄곧 상처가 아물지 못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잘라야



할 위험성이 있다 는것이 있다. 후에 경상적으로 열이 나고 반복적으로 입원해도 열이 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입원하였을때 화장실에 가면서 또 다리를 분질러 병원을 옮겨 다리 있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두주일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말로는 혈관이 이미 막혀 버리고 근육이 위축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밥을 먹기조차 곤란하여 참으로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였다. 십만여원의 치료비를 쓰고도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는데 2007년 4월 10일에 집에서 죽었다. 림종시 사람들은 그녀의 처참한 비명소리를 들을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법을 박해함으로 하여 받은 현세현보(现世现报)이다!

파출소 소장이 각성하여 두려움없이 진실을 말하다

걸려 역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홍씨 가족의 세마리 《짐승》(호랑이, 표범, 사자)는 모두 수치스러운 끝장을 보고야 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악경과 악인들에게 경고하는봐

대법은 일체 중생에게 자비롭다. 아직도 악을 행하는자들은 즉각 박해행위를 정지하고 더 이상 사악한 당과 한무리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대법과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라. 이것은 당신들의 유일한 출로이고 생명의 희망이다. 대법은 위엄이 있다. 당신들이 계속 벼랑끝에서 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홍씨 가족과 같은 악보는 아주 빨리 당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남은 시간은 이미 너무 너무 적다.어서 빨리 깨여나라!



不
而
疏
悔
恢
恢
恢
恢

하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파룬궁 진상 전단지를 찢고 악보를 받아 집에서 폭사

우리 이웃집 리할머니 댁의 늙은 두 양반은 사악한 공산당이 기만하는 선전을 곧이 듣고 파룬궁의 진상 전단지와 표어만 보면 찢어버리고 또 발로 문질렀다. 또한 악인을 방조하여 대법제자의 뒤를밟고 충집 문 어구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따져 물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사람에게 반감을

40

리락우의 안해에게 《저것들을 절대 가만두지 말아요.》라고 하며 분개해하였다.

리락우는 지금 간수소에서 비법적으로 심문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다.

서란시(舒兰市) 길서진 (吉舒镇) 양수상(楊守祥)이 악경들에게 강박으로 랍치당하다

2007년 4월 25일 점심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서란시 길서진 4, 5명의 악경들이 양수상의 집에 뛰여들어 집수색을 하고 대법사부님의 법신상과 여러 자료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아직 옷도 입지 못한 양수상을 강박적으로 랍치해갔다. 그후 악경들은 또 강경부(姜景富)의 집에 가서 수색하였는데 반나절이나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것도 수색해내지 못하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훌쩍 가버렸다.

구태(九台)시 대법제자 손문영(孙文荣)이 랍치당하다

길림성 구태시 대법제자 손문영, 녀, 2007년 5월 4일 저녁, 구태시 남산파출소와 현지 610에 의해 집에서 강박적으로 랍치당하였다. 손문영의 남편은 지금 암 말기여서 보살펴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

구태시 남산파출소에서는 1999년 7.20 아래 강씨집단을 바싹 쫓아 대법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남산파출소는 사악하기로 그지없는바 전력을 기울여서

5

걸려 역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홍씨 가족의 세마리 《짐승》(호랑이, 표범, 사자)는 모두 수치스러운 끝장을 보고야 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악경과 악인들에게 경고하는봐

대법은 일체 중생에게 자비롭다. 아직도 악을 행하는자들은 즉각 박해행위를 정지하고 더 이상 사악한 당과 한무리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대법과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하라. 이것은 당신들의 유일한 출로이고 생명의 희망이다. 대법은 위엄이 있다. 당신들이 계속 벼랑끝에서 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홍씨 가족과 같은 악보는 아주 빨리 당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남은 시간은 이미 너무 너무 적다.어서 빨리 깨여나라!



不
而
疏
悔
恢
恢
恢
恢

하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파룬궁 진상 전단지를 찢고 악보를 받아 집에서 폭사

우리 이웃집 리할머니 댁의 늙은 두 양반은 사악한 공산당이 기만하는 선전을 곧이 듣고 파룬궁의 진상 전단지와 표어만 보면 찢어버리고 또 발로 문질렀다. 또한 악인을 방조하여 대법제자의 뒤를밟고 충집 문 어구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따져 물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사람에게 반감을

40

리락우의 안해에게 《저것들을 절대 가만두지 말아요.》라고 하며 분개해하였다.

리락우는 지금 간수소에서 비법적으로 심문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다.

서란시(舒兰市) 길서진 (吉舒镇) 양수상(楊守祥)이 악경들에게 강박으로 랍치당하다

2007년 4월 25일 점심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서란시 길서진 4, 5명의 악경들이 양수상의 집에 뛰여들어 집수색을 하고 대법사부님의 법신상과 여러 자료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아직 옷도 입지 못한 양수상을 강박적으로 랍치해갔다. 그후 악경들은 또 강경부(姜景富)의 집에 가서 수색하였는데 반나절이나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것도 수색해내지 못하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훌쩍 가버렸다.

구태(九台)시 대법제자 손문영(孙文荣)이 랍치당하다

길림성 구태시 대법제자 손문영, 녀, 2007년 5월 4일 저녁, 구태시 남산파출소와 현지 610에 의해 집에서 강박적으로 랍치당하였다. 손문영의 남편은 지금 암 말기여서 보살펴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

구태시 남산파출소에서는 1999년 7.20 아래 강씨집단을 바싹 쫓아 대법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남산파출소는 사악하기로 그지없는바 전력을 기울여서

5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여 수많은 대법제자들에게 상해를 조성하였다.

건안현(乾安县) 두 명의 대법제자가 랍치당하고 여러 명의 대법제자가 소란 당하다

송생(宋生)은 대법에 대한 믿음이 견정하다는 이유로 2002년 비법적으로 5년 판결을 받고 길림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2007년 3월 27일 집으로 돌아왔는데 2007년 4월 27일 오전 11시 좌우 건안진제 2파출소 진애륜(陳愛倫) 등 3명의 악경들이 사복을 하고 송생의 집에 뛰어 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또다시 송생을 구류소로 랍치해갔다. 동시에 그의 안해(대법제자)마저 랍치하려 하였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4월 28일 저녁 7시, 수자진(水字鎮) 파출소 담당민경 손태옥(孙太玉)은 건안현 공안국 국보대대의 여러 사람들과 결탁하여 전립촌(前立村) 대법제자 곽해홍(郭海紅)의 집에 뛰어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강박적으로 곽해홍을 경찰차에 끌고 올라갔다. 지금 곽해홍은 비법적으로 건안현 구류소에 감금되어 있다. 악경들의 악행은 곽해홍 일가족의 생활과 정신상에 아주 큰 상해를 주었다.

4월 26일 오후 건안진제 2파출소 한무리 악경들은 대법제자 맹연(孟燕)의

6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여 수많은 대법제자들에게 상해를 조성하였다.

건안현(乾安县) 두 명의 대법제자가 랍치당하고 여러 명의 대법제자가 소란 당하다

송생(宋生)은 대법에 대한 믿음이 견정하다는 이유로 2002년 비법적으로 5년 판결을 받고 길림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2007년 3월 27일 집으로 돌아왔는데 2007년 4월 27일 오전 11시 좌우 건안진제 2파출소 진애륜(陳愛倫) 등 3명의 악경들이 사복을 하고 송생의 집에 뛰어 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또다시 송생을 구류소로 랍치해갔다. 동시에 그의 안해(대법제자)마저 랍치하려 하였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4월 28일 저녁 7시, 수자진(水字鎮) 파출소 담당민경 손태옥(孙太玉)은 건안현 공안국 국보대대의 여러 사람들과 결탁하여 전립촌(前立村) 대법제자 곽해홍(郭海紅)의 집에 뛰어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강박적으로 곽해홍을 경찰차에 끌고 올라갔다. 지금 곽해홍은 비법적으로 건안현 구류소에 감금되어 있다. 악경들의 악행은 곽해홍 일가족의 생활과 정신상에 아주 큰 상해를 주었다.

4월 26일 오후 건안진제 2파출소 한무리 악경들은 대법제자 맹연(孟燕)의

6



큰 아들, 그의 두 남동생중 하나는 흥표(洪豹)라고 부르고 하나는 흥사(洪獅)라고 부른다. 홍호가 길림성에 와서 부임한 이래, 그는 동생 흥사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의 피땀을 겁탈하도록 하였는데 길림성 인민들에게 모두 끌어안고, 모두 먹어버리고, 모두 팔아버리는 (搂光、吃光、卖光) 삼광정책을 실시하였다. 그가 부임한이래 길림성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전국에서 마지막 세번째였다.

7.20 이래, 그는 길림성 성위서기 왕운곤(王云坤)과 의기투합하고 길림성 대법제자들에게 참혹한 박해를 실시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저질렀다. 2005년 초, 중앙기률위원회 전문안건조에서는 이미 홍호의 범죄증거를 장악하였지만 왕운곤과 홍학지의 비호(庇护)에 의해 시종 강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내부쟁탈은 치렬하였다. 중앙기률위원회 전문안건조에서는 그대로 그만두는 것이 달갑지 않아 대량의 증거를 장악한 정황하에서 흥사를 비밀리에 체포하였다. 심문과정중에서 흥사는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을 보고 홍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벽에 부딪쳐 자살을 시도하였다. 후에 구급치료를 거쳐 식물인이 되여 벼렸다. 전문안건조에서는 인명이 발생한 것을 보고 홍호의 안건을 급급히 수습해버리고 나중에 상급에 보고하여 홍호의 직무를 해임시켰다. 그리고 홍호의 둘째동생 흥표(원 천진군구 부사령원)는 정신병에

39

큰 아들, 그의 두 남동생중 하나는 흥표(洪豹)라고 부르고 하나는 흥사(洪獅)라고 부른다. 홍호가 길림성에 와서 부임한 이래, 그는 동생 흥사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의 피땀을 겁탈하도록 하였는데 길림성 인민들에게 모두 끌어안고, 모두 먹어버리고, 모두 팔아버리는 (搂光、吃光、卖光) 삼광정책을 실시하였다. 그가 부임한이래 길림성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전국에서 마지막 세번째였다.

7.20 이래, 그는 길림성 성위서기 왕운곤(王云坤)과 의기투합하고 길림성 대법제자들에게 참혹한 박해를 실시하여 하늘에 사무치는 죄행을 저질렀다. 2005년 초, 중앙기률위원회 전문안건조에서는 이미 홍호의 범죄증거를 장악하였지만 왕운곤과 홍학지의 비호(庇护)에 의해 시종 강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내부쟁탈은 치렬하였다. 중앙기률위원회 전문안건조에서는 그대로 그만두는 것이 달갑지 않아 대량의 증거를 장악한 정황하에서 흥사를 비밀리에 체포하였다. 심문과정중에서 흥사는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을 보고 홍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벽에 부딪쳐 자살을 시도하였다. 후에 구급치료를 거쳐 식물인이 되여 벼렸다. 전문안건조에서는 인명이 발생한 것을 보고 홍호의 안건을 급급히 수습해버리고 나중에 상급에 보고하여 홍호의 직무를 해임시켰다. 그리고 홍호의 둘째동생 흥표(원 천진군구 부사령원)는 정신병에

39

『파룬궁』 이란 글자를 제기한 적은 없다!

적사강 등이 장기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610의 지시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파룬궁인원에 대한 혹형은 개인 행위거나 개별행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레를 들어: 2005년 적사강이 양려견에게 겨자물을 먹이고 철몽동으로 다리를 짓누르고 발로 얼굴을 짓밟고 전기몽동으로 얼굴을 감전시켰는데 이미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지만 적사강은 의연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본래보다 더 사악한데 이러한 악인에 대하여 가족에서는 법에 의해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추궁할 것을 표시하였다.

희망하건대 전 사회 모든 량심이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당신들의 지원의 손길을 뻗쳐 이 한차례 인성을 말살하는 박해를 하루빨리 결속 짓기를 바란다!

원 길림성성장 홍호(洪虎)가 보옹을 받다

홍호(洪虎)(별명은 붉은 수염-동북사투리에서 홍색토비), 원 중공 악당 중앙군위부주석 홍학지(洪學智)(별명 홍곰보)의



38

집에 뛰어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였다.

4월 29일 오후 3시 좌우 수차진 파출소 담당민경 형풍(邢风)(음)은 건안현 공안국 국보대대의 네 사람과 결탁하여 대법제자 왕전하(王殿霞)의 집에 뛰어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교란하였다. 근래 건안현 국보대대는 각 파출소, 610의 악경들과 결탁하여 전부 사복을 하고 여러 명의 대법제자들의 집을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교란하였다.

길림시대법제자 무건영(武建英)이 사당의 검찰원에 의해 비법적인 체포령을 받다

길림성 창읍구(昌邑区) 검찰원에서는 4월 21일 이미 체포령 통지서를 대법제자 무건영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체포되었는데 현지 시 제 3 간수소에 있다. 악경들은 줄곧 가족들이 면회를 못하게 하고 있다.

길림시 대법제자 류홍위(刘宏伟)、목평(穆萍)이 비법적으로 길림시 간수소에 감금되어 있다

길림시 대법제자 류홍위、목평은 2006년 10월 장춘 악경들에게 랍치된 후 줄곧 비법적으로 길림시 간수소에 감금되어 있다. 그간, 류홍위는 길림시 구전(口前) 세뇌반에 끌려가 박해를 받고 허리를 손상 받아 지금 훨체어에 앉았다.

7

『파룬궁』 이란 글자를 제기한 적은 없다!

적사강 등이 장기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610의 지시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파룬궁인원에 대한 혹형은 개인 행위거나 개별행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레를 들어: 2005년 적사강이 양려견에게 겨자물을 먹이고 철몽동으로 다리를 짓누르고 발로 얼굴을 짓밟고 전기몽동으로 얼굴을 감전시켰는데 이미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지만 적사강은 의연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본래보다 더 사악한데 이러한 악인에 대하여 가족에서는 법에 의해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추궁할 것을 표시하였다.

희망하건대 전 사회 모든 량심이 있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당신들의 지원의 손길을 뻗쳐 이 한차례 인성을 말살하는 박해를 하루빨리 결속 짓기를 바란다!

원 길림성성장 홍호(洪虎)가 보옹을 받다

홍호(洪虎)(별명은 붉은 수염-동북사투리에서 홍색토비), 원 중공 악당 중앙군위부주석 홍학지(洪學智)(별명 홍곰보)의



38

집에 뛰어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였다.

4월 29일 오후 3시 좌우 수차진 파출소 담당민경 형풍(邢风)(음)은 건안현 공안국 국보대대의 네 사람과 결탁하여 대법제자 왕전하(王殿霞)의 집에 뛰어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교란하였다. 근래 건안현 국보대대는 각 파출소, 610의 악경들과 결탁하여 전부 사복을 하고 여러 명의 대법제자들의 집을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교란하였다.

길림시대법제자 무건영(武建英)이 사당의 검찰원에 의해 비법적인 체포령을 받다

길림성 창읍구(昌邑区) 검찰원에서는 4월 21일 이미 체포령 통지서를 대법제자 무건영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체포되었는데 현지 시 제 3 간수소에 있다. 악경들은 줄곧 가족들이 면회를 못하게 하고 있다.

길림시 대법제자 류홍위(刘宏伟)、목평(穆萍)이 비법적으로 길림시 간수소에 감금되어 있다

길림시 대법제자 류홍위、목평은 2006년 10월 장춘 악경들에게 랍치된 후 줄곧 비법적으로 길림시 간수소에 감금되어 있다. 그간, 류홍위는 길림시 구전(口前) 세뇌반에 끌려가 박해를 받고 허리를 손상 받아 지금 훨체어에 앉았다.

7

이 안건을 처리한 길림시 공안국 선영분국(船營分局) 정심과(政审科) **왕수의(王守义)**와 길림시 간수소 **종무강(从茂強)**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류홍위와 목평의 가족은 줄곧 사람을 요구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 안건은 길림성 선영구 법원에서 비법적으로 심사처리중에 있으며 줄곧 결과가 없다.



주요책임자:

고명(高明): 길림성 검찰원(공수과)(公訴科)

호춘위(胡春伟): 길림성 선영구법원(형률청)(刑律厅)

왕수의(王守义): 길림성 공안국선영구분국(정심과)

길림대법제자 **손연(孙艳)**이 악경들에게 랍치당하고 비법적으로 감금당하다

길림성 대법제자 **손연**(42세), 3월 15일 250공장 부근 유수구(榆树沟) 집에서 악들에게 랍치당하였다. 현재 비법적으로 풍만신건(丰满新建) 제2간수소 605방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길림대법제자 **우문충(于文忠)**이 랍치당하고 안해와 둘째누이도 랍치당하다

2007년 4월 30일 오전 출근시간에 길림시 룽담구 철동(龙潭区铁东) 대법제자 **우문충**이 룽담구

이 안건을 처리한 길림시 공안국 선영분국(船營分局) 정심과(政审科) **왕수의(王守义)**와 길림시 간수소 **종무강(从茂強)**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류홍위와 목평의 가족은 줄곧 사람을 요구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 안건은 길림성 선영구 법원에서 비법적으로 심사처리중에 있으며 줄곧 결과가 없다.



주요책임자:

고명(高明): 길림성 검찰원(공수과)(公訴科)

호춘위(胡春伟): 길림성 선영구법원(형률청)(刑律厅)

왕수의(王守义): 길림성 공안국선영구분국(정심과)

길림대법제자 **손연(孙艳)**이 악경들에게 랍치당하고 비법적으로 감금당하다

길림성 대법제자 **손연**(42세), 3월 15일 250공장 부근 유수구(榆树沟) 집에서 악들에게 랍치당하였다. 현재 비법적으로 풍만신건(丰满新建) 제2간수소 605방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길림대법제자 **우문충(于文忠)**이 랍치당하고 안해와 둘째누이도 랍치당하다

2007년 4월 30일 오전 출근시간에 길림시 룽담구 철동(龙潭区铁东) 대법제자 **우문충**이 룽담구

요구하였다. 가족의 변함없는 요구하에서 길림시 610 판공실의 **이모(伊某)**를 만나보게 되었다. 가족은 왕립추가 박해 받은 정황을 상세히 이야기 하고 두 가지 요구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었는데 악경들이 뒤에서 복돈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가족에서 왕립추를 석방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이모는 체포 당시 『현장』에 『구평』과 『당문화해체』 등 서적과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족에서는 왕립추는 사회에 그 어떤 위해도 조성하지 않았고 왕립추가 법륜대법을 수련하는 것도 법을 범한 것이 아니며 또한 책에 쓴 내용도 모두 사실이며 그리고 그 누가 xx 당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한보한보 이 지경까지 걸어온 것이며 쏘련이 해체되니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진 이것이 바로 선례가 아니란 말인가고 지적하였다. 법률을 놓고 말한다면 세계상에서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범죄』는 『살인』과 『강탈』인데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범죄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을 놓고 말하면 정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수개한것인데 문화대혁명이 바로 그 실례이다. 이것을 가짜 법률이라고 부른다. 파룬궁에 대한 평가도 역시 이러한데 금지시키기 위하여 림시로 법률을 왜곡하고 이른바 형법 300조와 두 고등사법기관의 해석을 강압적으로 보탰을뿐

요구하였다. 가족의 변함없는 요구하에서 길림시 610 판공실의 **이모(伊某)**를 만나보게 되었다. 가족은 왕립추가 박해 받은 정황을 상세히 이야기 하고 두 가지 요구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었는데 악경들이 뒤에서 복돈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가족에서 왕립추를 석방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이모는 체포 당시 『현장』에 『구평』과 『당문화해체』 등 서적과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족에서는 왕립추는 사회에 그 어떤 위해도 조성하지 않았고 왕립추가 법륜대법을 수련하는 것도 법을 범한 것이 아니며 또한 책에 쓴 내용도 모두 사실이며 그리고 그 누가 xx 당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한보한보 이 지경까지 걸어온 것이며 쏘련이 해체되니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진 이것이 바로 선례가 아니란 말인가고 지적하였다. 법률을 놓고 말한다면 세계상에서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범죄』는 『살인』과 『강탈』인데 이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범죄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을 놓고 말하면 정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수개한것인데 문화대혁명이 바로 그 실례이다. 이것을 가짜 법률이라고 부른다. 파룬궁에 대한 평가도 역시 이러한데 금지시키기 위하여 림시로 법률을 왜곡하고 이른바 형법 300조와 두 고등사법기관의 해석을 강압적으로 보탰을뿐

부모님은 심신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였으며 날마다 공안국을 찾아 도리를 따지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왕립추의 가족은 별 방도가 없는 정황하에서 사무청을 향하여 악경 적사강이 직무해지 할 것을 요구 한다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별수없이 가족은 신방공심처(信访控审处)를 찾아가니 형철영(邢铁营)처장은 공개적으로 《경찰은 법에 의해 사건을 처리했다. 겨자물을 부어 넣은 것은 정상적인 사건처리이다.》라고 하면서 왕립추 가족의 사람을 내놓고 적사강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일률로 검찰원에 밀어 붙였는데 이것은 완전히 중공이 길러낸 건달 악당의 몰골이다.

그후 가족에서는 또 사건처리단위 창읍분국에 가서 도홍택(都兴泽)을 찾으니 큰 화를 내면서 가족을 공갈하였으며 사건 처리인 곽예(郭锐)는 량심을 버리고 단입으로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국장 양대광(杨大光)은 이 일에 상관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한 보통공민의 최저한도의 요구도 근본 정상적인 법률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가 없었다.

4 월 23 일 왕립추의 가족은 또다시 시 610 판공실로 찾아가서 공정(公正)을 되찾고 왕립추를 무조건 석방하고 적사강의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을

36

철동고천 (古川) 형경대대 문어구를 지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당하였다. 당시 몸에 황색옷을 입은 사람이 검은색 승용차에서 나오더니 악경들더러 우문충을 강제로 고천 형경대대로 랍치해가도록 하였다. 나중에 또 강박적으로 집을 수색하였다. 우문충의 안해 조연추가 집에 없으니 악경들은 또 우문충의 둘째 누나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마침 둘째 누나 집에 금방 도착한 조연추를 보자 악경들은 조연추와 둘째 누나를 강제로 랍치하여 고천 형경대대로 끌고 갔다가 저녁 아홉시경에야 놓아주었다.

우문충은 지금 길림시 제 3 간수소에 갇혀 있다. 그는 이미 악경들에게 맞아서 혼자 걷지 못하고 두 사람이 부축여야 걸을 수 있으며 그의 안해 조연추는 악경들에게 맞아서 얼굴이 다 부었다.

아는바에 의하면 길림시 강남 풍만향 아선 (江南丰满乡阿什)4 대 대법제자 서국군(徐国君)(음)등 4, 5 명은 이미 한달 전에 랍치되어 현재 이미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았다.



왕청 대법제자 리문지(李文智)가 랍치되고 어린 아이는 의거할 곳이 없다

길림성 연변 왕청현 동광진 파출소 악경들은

9

부모님은 심신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였으며 날마다 공안국을 찾아 도리를 따지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왕립추의 가족은 별 방도가 없는 정황하에서 사무청을 향하여 악경 적사강이 직무해지 할 것을 요구 한다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별수없이 가족은 신방공심처(信访控审处)를 찾아가니 형철영(邢铁营)처장은 공개적으로 《경찰은 법에 의해 사건을 처리했다. 겨자물을 부어 넣은 것은 정상적인 사건처리이다.》라고 하면서 왕립추 가족의 사람을 내놓고 적사강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일률로 검찰원에 밀어 붙였는데 이것은 완전히 중공이 길러낸 건달 악당의 몰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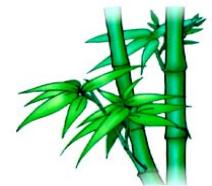
그후 가족에서는 또 사건처리단위 창읍분국에 가서 도홍택(都兴泽)을 찾으니 큰 화를 내면서 가족을 공갈하였으며 사건 처리인 곽예(郭锐)는 량심을 버리고 단입으로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국장 양대광(杨大光)은 이 일에 상관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한 보통공민의 최저한도의 요구도 근본 정상적인 법률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가 없었다.

4 월 23 일 왕립추의 가족은 또다시 시 610 판공실로 찾아가서 공정(公正)을 되찾고 왕립추를 무조건 석방하고 적사강의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을

철동고천 (古川) 형경대대 문어구를 지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당하였다. 당시 몸에 황색옷을 입은 사람이 검은색 승용차에서 나오더니 악경들더러 우문충을 강제로 고천 형경대대로 랍치해가도록 하였다. 나중에 또 강박적으로 집을 수색하였다. 우문충의 안해 조연추가 집에 없으니 악경들은 또 우문충의 둘째 누나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마침 둘째 누나 집에 금방 도착한 조연추를 보자 악경들은 조연추와 둘째 누나를 강제로 랍치하여 고천 형경대대로 끌고 갔다가 저녁 아홉시경에야 놓아주었다.

우문충은 지금 길림시 제 3 간수소에 갇혀 있다. 그는 이미 악경들에게 맞아서 혼자 걷지 못하고 두 사람이 부축여야 걸을 수 있으며 그의 안해 조연추는 악경들에게 맞아서 얼굴이 다 부었다.

아는바에 의하면 길림시 강남 풍만향 아선 (江南丰满乡阿什)4 대 대법제자 서국군(徐国君)(음)등 4, 5 명은 이미 한달 전에 랍치되어 현재 이미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았다.



왕청 대법제자 리문지(李文智)가 랍치되고 어린 아이는 의거할 곳이 없다

길림성 연변 왕청현 동광진 파출소 악경들은

36

9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4월 18일 당시 대법제자 리문지를 랍치하여 리문지의 열살난 아들은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악경들은 심지어 아이를 양로원에 보내거나 입양시키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장춘 위성로(卫星路) 파출소에서 근간에 선후로 다섯명의 대법제자를 랍치하였다

장춘시 위성로 파출소 부소장 왕무화(王茂华)는 장건(張健)、우문결(于文杰)、왕덕우(王德禹)、마표(馬彪) 등 악인들을 거느리고 근간에 선후로 다섯명의 대법제자를 랍치하고 집을 수색하였다. 그 중, 장춘리공대학 회계사 **부향(付香)**은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았으며 광기(光机) 공장 **강숙문(姜淑文)**은 현재 제3간수소에 감금되어 있고 류할머니(刘老太太)는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당하였다. 4월 22일 장춘리공대학 **곽금지(郭金芝)**와 목씨성을 가진 대법제자가 동시에 집을 수색당하고 랍치되었는데 제3간수소에 보내진 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니 위성로 파출소에서는 두 사람의 가속한 테서 각기 5천원씩 협잡하고서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예 집행 1년이라고 하였다.

장춘공정학원 대법제자 구향양(邹向阳)이 랍치당하다

10

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당한지 두개월 되는 이래 왕의 가족에서는 줄곧 유관부문을 찾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선후로 길림시 610、시공안국、창읍(昌邑)공안분국、시법원、시검찰원、창읍검찰원、선영(船營)분국 향양(向阳)파출소에 가서 사람을 요구하였지만 가는 곳마다 들리는 것은 모두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이고 심지어 위협공갈 하는 것뿐이였다.

왕립추가 박해받은 정황을 료해하고 사회의 공정을 구하기 위하여 가족에서는 유관 변호사를 찾아 자문하였다. 악경들이 소식을 엄밀히 봉쇄하고 변호사가 정부의 간섭으로 끼여들수 없는 정황하에서 나중에 가족들은 선량한 사람의 도움하에서 알게 되였는데 왕립추는 붙잡힐 때 길림시 월산로(越山路) 경견기지(警犬基地)에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국보지대 과장적사강은 악경 손장(孙壯)등과 결탁하여 왕립추에게 여덟병의 거자물(芥末水)을 부어넣었는데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뿐어 나왔다. 악경은 왕립추가 정신을 잃으면 친물을 끼얹으면서 박해를 계속하였다. 악경 손장은 왕립추의 가방에 있던 돈 440 원을 빼앗고 장부에 올리지 않고 돌려주기를 거절하고 있다. 왕립추는 현재 길림성 간수소에 비법 감금되어 있다. 왕립추는 또다시 단식하고 있는데 매일 강제적인 음식 주입으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신체가 극히 허약하다.

가족에서 왕립추의 박해정황을 알게 된후, 년로한
35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4월 18일 당시 대법제자 리문지를 랍치하여 리문지의 열살난 아들은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악경들은 심지어 아이를 양로원에 보내거나 입양시키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장춘 위성로(卫星路) 파출소에서 근간에 선후로 다섯명의 대법제자를 랍치하였다

장춘시 위성로 파출소 부소장 왕무화(王茂华)는 장건(張健)、우문결(于文杰)、왕덕우(王德禹)、마표(馬彪) 등 악인들을 거느리고 근간에 선후로 다섯명의 대법제자를 랍치하고 집을 수색하였다. 그 중, 장춘리공대학 회계사 **부향(付香)**은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았으며 광기(光机) 공장 **강숙문(姜淑文)**은 현재 제3간수소에 감금되어 있고 류할머니(刘老太太)는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당하였다. 4월 22일 장춘리공대학 **곽금지(郭金芝)**와 목씨성을 가진 대법제자가 동시에 집을 수색당하고 랍치되었는데 제3간수소에 보내진 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니 위성로 파출소에서는 두 사람의 가속한 테서 각기 5천원씩 협잡하고서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예 집행 1년이라고 하였다.

장춘공정학원 대법제자 구향양(邹向阳)이 랍치당하다

10

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당한지 두개월 되는 이래 왕의 가족에서는 줄곧 유관부문을 찾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선후로 길림시 610、시공안국、창읍(昌邑)공안분국、시법원、시검찰원、창읍검찰원、선영(船營)분국 향양(向阳)파출소에 가서 사람을 요구하였지만 가는 곳마다 들리는 것은 모두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이고 심지어 위협공갈 하는 것뿐이였다.

왕립추가 박해받은 정황을 료해하고 사회의 공정을 구하기 위하여 가족에서는 유관 변호사를 찾아 자문하였다. 악경들이 소식을 엄밀히 봉쇄하고 변호사가 정부의 간섭으로 끼여들수 없는 정황하에서 나중에 가족들은 선량한 사람의 도움하에서 알게 되였는데 왕립추는 붙잡힐 때 길림시 월산로(越山路) 경견기지(警犬基地)에 끌려가 박해를 받았다. 국보지대 과장적사강은 악경 손장(孙壯)등과 결탁하여 왕립추에게 여덟병의 거자물(芥末水)을 부어넣었는데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뿐어 나왔다. 악경은 왕립추가 정신을 잃으면 친물을 끼얹으면서 박해를 계속하였다. 악경 손장은 왕립추의 가방에 있던 돈 440 원을 빼앗고 장부에 올리지 않고 돌려주기를 거절하고 있다. 왕립추는 현재 길림성 간수소에 비법 감금되어 있다. 왕립추는 또다시 단식하고 있는데 매일 강제적인 음식 주입으로 박해를 받고 있으며 신체가 극히 허약하다.

가족에서 왕립추의 박해정황을 알게 된후, 년로한
35

우파(于波)등 사악한 자들과 결탁하여 날이 어둡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가만히 공안국 맞은켠 층집 뒤켠의 한 주택에 뛰여들어 비밀리에 세명의 대법제자와 삼륜차 기사 한 사람을 랍치했다. 이튿날, 이 기사의 안해가 소식을 듣고 동삼파출소에 가서 양대수를 찾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자(목격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양모는 류망행위가 발작하여 기사의 안해를 땅바닥에 메치고는 몇십메터나 끌고가 이 녀인의 웃옷과 바지가 끌려서 다 해졌다. 당시 이 녀인은 화가 나서 양모를 몇마디 욕하였다. 양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대법제자와 삼륜차 기사를 구류소에 넣고 구류소 판공실에서 삼륜차 기사에게 사사로이 보복하였는데 혹형으로 기사를 다섯시간 동안이나 지각을 잊게 만들었다.

더욱 비렬한것은 양대수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마음대로 위조증명을 만들어 죄명을 라렬하여 대법제자 **류춘연(劉春艳)**을 박해하고 및 기사의 안해가 화김에 욕한 원쑤를 갚으려고 망상한 것이다. 이 악렬한 행위로부터 족히 중공정부가 양대수 따위의 비렬한 소인들을 리용하여 민중을 박해하는 본질을 똑똑히 보아낼 수 있다.

가족에서 왕립추(王立秋)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악경 적사강(狄士刚)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길림시 대법제자 왕립추가 2 월 13 일 길림시

34

구향양, 40 여세, 박사학위, 그는 장춘공정학원의 교사이다. 2002 년에 사악에게 랍치되어 조양구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험하게 되자 2004 년 좌우에 보석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2007년 4 월 25 일 저녁 여섯시 경에 장춘시 관평로(寛平路) 파출소 악경들이 대법제자 구향양의 집에 뛰여들어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대법서적을 가져갔으며 구향양을 랍치하였는데 지금 비법적으로 장춘시 제 2 간수소 (호월부근) (浩月附近)에 갇혀있다. 집에는 고중입시시험을 치를 학생아이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였다.



백산시 대통구(大通沟) 대법제자들이 악경들의 교란을 받다

길림시 백산시 대통구에 있는 로년부부(약 60 세 좌우)가 4 월 21 일 좌우 랍치당하고 집을 수색 당하였다. 그 외 또 한 명의 로년동수도 교란을 받았는데 성명은 모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통화(通化)대법제자 서영걸(徐英杰)、수언장(隋彦章)

11

우파(于波)등 사악한 자들과 결탁하여 날이 어둡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가만히 공안국 맞은켠 층집 뒤켠의 한 주택에 뛰여들어 비밀리에 세명의 대법제자와 삼륜차 기사 한 사람을 랍치했다. 이튿날, 이 기사의 안해가 소식을 듣고 동삼파출소에 가서 양대수를 찾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자(목격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양모는 류망행위가 발작하여 기사의 안해를 땅바닥에 메치고는 몇십메터나 끌고가 이 녀인의 웃옷과 바지가 끌려서 다 해졌다. 당시 이 녀인은 화가 나서 양모를 몇마디 욕하였다. 양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대법제자와 삼륜차 기사를 구류소에 넣고 구류소 판공실에서 삼륜차 기사에게 사사로이 보복하였는데 혹형으로 기사를 다섯시간 동안이나 지각을 잊게 만들었다.

더욱 비렬한것은 양대수가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마음대로 위조증명을 만들어 죄명을 라렬하여 대법제자 **류춘연(劉春艳)**을 박해하고 및 기사의 안해가 화김에 욕한 원쑤를 갚으려고 망상한 것이다. 이 악렬한 행위로부터 족히 중공정부가 양대수 따위의 비렬한 소인들을 리용하여 민중을 박해하는 본질을 똑똑히 보아낼 수 있다.

가족에서 왕립추(王立秋)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악경 적사강(狄士刚)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길림시 대법제자 왕립추가 2 월 13 일 길림시

34

구향양, 40 여세, 박사학위, 그는 장춘공정학원의 교사이다. 2002 년에 사악에게 랍치되어 조양구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험하게 되자 2004 년 좌우에 보석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2007년 4 월 25 일 저녁 여섯시 경에 장춘시 관평로(寛平路) 파출소 악경들이 대법제자 구향양의 집에 뛰여들어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하고 대법서적을 가져갔으며 구향양을 랍치하였는데 지금 비법적으로 장춘시 제 2 간수소 (호월부근) (浩月附近)에 갇혀있다. 집에는 고중입시시험을 치를 학생아이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였다.



백산시 대통구(大通沟) 대법제자들이 악경들의 교란을 받다

길림시 백산시 대통구에 있는 로년부부(약 60 세 좌우)가 4 월 21 일 좌우 랍치당하고 집을 수색 당하였다. 그 외 또 한 명의 로년동수도 교란을 받았는데 성명은 모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통화(通化)대법제자 서영걸(徐英杰)、수언장(隋彦章)

11

부부가 랍치당하다

2007년 4월 19일 저녁, 통화시 낡은 역전(기차역전)부근의 대법제자 **서영걸, 수언장**부부가 길림성 공안청 악경들에 의해 집을 수색당하고 랍치되었는데 컴퓨터, 프린터 등 설비들을 빼앗아갔다. 현재 부부 두 사람의 간한 지점은 정확하지 못하니 내막을 아는 분이 있으면 폭로하기 바란다. 현재 그들의 집에는 고중에 다니는 딸아이만 남아있다.

장춘시 이도구 빈하신촌(二道区滨河新村) 대법제자 대상령 (岱尚玲)이 체포당하다

2007년 4월 29일 오후, 장춘시 이도구분국과 동삼(東站)파출소에서 열쇠수리공사 인원을 거느리고 두 차의 경찰들이 이도구 빈하신촌 3 구 녀대법제자 **대상령**의 집으로 들이닥쳐 강박적으로 문을 연후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일부 대법자료들을 수색해 갔으며 사람도 랍치해갔다.



장춘시 이도구 천안(泉眼)파출소에서 대법제자 손경림 (孙景林) 부부를 랍치하다

2007년 4월 26일 저녁 여덟 시경, 천안파출소 악경들이 비법적으로 대법제자 **손경림**의 집에 뛰여들

12

대법 창시인에 대하여 비방하였는데 이러한 행실은 자신한테 업을 지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망치는 일로서 동진우에게 정중하게 경고하는데 어서 빨리 악행을 멈추라! 대법을 리용하여 도처에서 공공연히 협잡질하는 행위를 정지하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천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변지구 룽정시 조양천 악경 최철호(崔哲浩)의 악행

길림성 룽정시 조양천 악경 **최철호**, 남, 28세, 근래 리익을 위하여 참혹하게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있다. 특히 조양천 (朝阳川) 근로(勤勞) 9 대 대법제자 **최복순** (崔福順)의 집을 비법수색하고 랍치하였다. 더욱이 위 령도가 최복순 안건은 증거가 부족하여 판결 할수 없다고 함에도 강제로 최복순을 장춘흑취자로교소로 보내 비법로동교양을 시켰다. 근래 당시의 많은 대법제자의 박해 안건은 모두 그가 참여하고 획책한 것이다.



길림성 공주령시 악경 양대수(杨大帅)를 폭로

악도 **양대수**, 남, 30여세, 길림성 공주령시 (公主岭市)령서(嶺西)분국 가속충집 4 단원 406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임시 공주령시 동삼(東三)파출소 부소장직을 맡고 있다.

이자는 2006년 11월 24일 저녁 일곱 시쯤, 악경

33

부부가 랍치당하다

2007년 4월 19일 저녁, 통화시 낡은 역전(기차역전)부근의 대법제자 **서영걸, 수언장**부부가 길림성 공안청 악경들에 의해 집을 수색당하고 랍치되었는데 컴퓨터, 프린터 등 설비들을 빼앗아갔다. 현재 부부 두 사람의 간한 지점은 정확하지 못하니 내막을 아는 분이 있으면 폭로하기 바란다. 현재 그들의 집에는 고중에 다니는 딸아이만 남아있다.

장춘시 이도구 빈하신촌(二道区滨河新村) 대법제자 대상령 (岱尚玲)이 체포당하다

2007년 4월 29일 오후, 장춘시 이도구분국과 동삼(東站)파출소에서 열쇠수리공사 인원을 거느리고 두 차의 경찰들이 이도구 빈하신촌 3 구 녀대법제자 **대상령**의 집으로 들이닥쳐 강박적으로 문을 연후 비법적으로 수색하고 일부 대법자료들을 수색해 갔으며 사람도 랍치해갔다.



장춘시 이도구 천안(泉眼)파출소에서 대법제자 손경림 (孙景林) 부부를 랍치하다

2007년 4월 26일 저녁 여덟 시경, 천안파출소 악경들이 비법적으로 대법제자 **손경림**의 집에 뛰여들

12

대법 창시인에 대하여 비방하였는데 이러한 행실은 자신한테 업을 지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망치는 일로서 동진우에게 정중하게 경고하는데 어서 빨리 악행을 멈추라! 대법을 리용하여 도처에서 공공연히 협잡질하는 행위를 정지하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천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변지구 룽정시 조양천 악경 최철호(崔哲浩)의 악행

길림성 룽정시 조양천 악경 **최철호**, 남, 28세, 근래 리익을 위하여 참혹하게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있다. 특히 조양천 (朝阳川) 근로(勤勞) 9 대 대법제자 **최복순** (崔福順)의 집을 비법수색하고 랍치하였다. 더욱이 위 령도가 최복순 안건은 증거가 부족하여 판결 할수 없다고 함에도 강제로 최복순을 장춘흑취자로교소로 보내 비법로동교양을 시켰다. 근래 당시의 많은 대법제자의 박해 안건은 모두 그가 참여하고 획책한 것이다.



길림성 공주령시 악경 양대수(杨大帅)를 폭로

악도 **양대수**, 남, 30여세, 길림성 공주령시 (公主岭市)령서(嶺西)분국 가속충집 4 단원 406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임시 공주령시 동삼(東三)파출소 부소장직을 맡고 있다.

이자는 2006년 11월 24일 저녁 일곱 시쯤, 악경

33

국보중대장 조춘림(趙春林)과 결탁하여 《국보경찰이 가도에 주둔, 국보경찰이 파출소에 주둔 한다》라는 악랄한 계책을 조작해내고 대법제자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려고 망상하고 있다. 국보경찰은 악명이 자자한 나치스 게슈타보로 되었는데 그들은 직접적으로 파출소 경찰이 대법제자에 대한 랍치, 감시를 감독지휘하는 범죄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목전 이 악랄한 계책은 정의감이 있는 경찰들의 반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더러 국보경찰과 함께 지옥으로 빠져들게 하는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아는 바에 의하면 장춘시 공안국에서는 이 독한 계책을 전시 각 분국에 보급하려 하고 있다.



장춘 길림대학 정치 동등이(打手) 동진우(董進宇)

길림성 장춘 길림대학 교수 동진우는 몇 년래 목돈을 벌기 위하여 전국각지 도처에서 중학생 잠재능력 훈련영을 꾸렸는데 이틀간의 학비가 1560 원에 달했다.

동진우는 3, 4 년 전에 파룬궁 학원한테 가서 《전법륜》을 빌려본후 또 파룬궁 창시인의 기타 설법 십여권을 보았다. 그는 대법이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 내용을 갈취하여 자기것으로 만들고는 사람들이 그의 강의에 대한 찬양을 속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는 또 강의중 공공연이 대법과

어 기편하여 문을 연후, 강박적으로 대법제자 손경림 부부를 랍치하였다.

송원시(松原市)대법제자 손계영(孙桂英)이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다

2007년 4월 9일, 전곽현(前郭县) 팔랑향(八郎乡) 파출소 악경 마승조(馬勝朝)、리조보(李祖寶)、류봉위(劉鳳威) 등은 팔랑향 목가촌(穆家村)(원 목가향) 대법 제자 손계영의 집에 들이닥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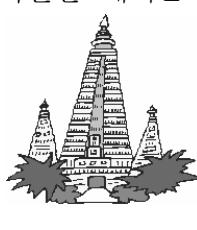


민가에 사사로이 뛰여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였는데 마치 토비를 방불케 했다. 그들은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창고마저도 한바탕 번져놓았다. 이때 마침 밖에서 돌아오고 있는 손계영을 랍치하고 가족들에게 15일 구류한다고 속여넘겼다. 결과 시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고 도리여 기다려온 것은 흑취자(黑嘴子)로교소 2 대대의 전화였는데 그들의 말로는 로동교양 1년 이라 하였다.

장춘시공안국 조양분국 위생로(卫星路) 파출소 악경들이 또 악을 행하다

4월 12일 저녁, 조양분국 위생로 파출소의 사악한 부소장 왕무림(王茂林), 악경 고진위(高振威)

국보중대장 조춘림(趙春林)과 결탁하여 《국보경찰이 가도에 주둔, 국보경찰이 파출소에 주둔 한다》라는 악랄한 계책을 조작해내고 대법제자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려고 망상하고 있다. 국보경찰은 악명이 자자한 나치스 게슈타보로 되었는데 그들은 직접적으로 파출소 경찰이 대법제자에 대한 랍치, 감시를 감독지휘하는 범죄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목전 이 악랄한 계책은 정의감이 있는 경찰들의 반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더러 국보경찰과 함께 지옥으로 빠져들게 하는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아는 바에 의하면 장춘시 공안국에서는 이 독한 계책을 전시 각 분국에 보급하려 하고 있다.



장춘 길림대학 정치 동등이(打手) 동진우(董進宇)

길림성 장춘 길림대학 교수 동진우는 몇 년래 목돈을 벌기 위하여 전국각지 도처에서 중학생 잠재능력 훈련영을 꾸렸는데 이틀간의 학비가 1560 원에 달했다.

동진우는 3, 4 년 전에 파룬궁 학원한테 가서 《전법륜》을 빌려본후 또 파룬궁 창시인의 기타 설법 십여권을 보았다. 그는 대법이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 내용을 갈취하여 자기것으로 만들고는 사람들이 그의 강의에 대한 찬양을 속여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는 또 강의중 공공연이 대법과

어 기편하여 문을 연후, 강박적으로 대법제자 손경림 부부를 랍치하였다.

송원시(松原市)대법제자 손계영(孙桂英)이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다

2007년 4월 9일, 전곽현(前郭县) 팔랑향(八郎乡) 파출소 악경 마승조(馬勝朝)、리조보(李祖寶)、류봉위(劉鳳威) 등은 팔랑향 목가촌(穆家村)(원 목가향) 대법 제자 손계영의 집에 들이닥쳐



민가에 사사로이 뛰여들어 비법적으로 수색하였는데 마치 토비를 방불케 했다. 그들은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창고마저도 한바탕 번져놓았다. 이때 마침 밖에서 돌아오고 있는 손계영을 랍치하고 가족들에게 15일 구류한다고 속여넘겼다. 결과 시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고 도리여 기다려온 것은 흑취자(黑嘴子)로교소 2 대대의 전화였는데 그들의 말로는 로동교양 1년 이라 하였다.

장춘시공안국 조양분국 위생로(卫星路) 파출소 악경들이 또 악을 행하다

4월 12일 저녁, 조양분국 위생로 파출소의 사악한 부소장 왕무림(王茂林), 악경 고진위(高振威)

등은 관할내 광기(光机) 기숙사 10 동 2 문 105 호실의 대법제자 강수문(姜淑文) (녀, 44 세)을 랍치하고 형사구류를 하였다.

4 월 23 일, 악경 고진위는 또 장춘시 리공대학 숙사 21동1문의 대법제자 과금지(郭金芝)(녀, 54 세)와 위광위 (卫光委) 212 조에 살고 있는 모계란(牟桂兰)(녀, 56 세)을 랍치하고 형사구류를 하였다.

장춘시 관평(寛平)파출소 악경들이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하다

2007년 4 월 26 일 저녁 일곱 시경, 길림성 장춘시 관평파출소 세 명의 민경들이 조양구 서개운거리 (西开运街) 대법제자 리월영(李月英)의 집에 뛰여들어 강제적으로 비법 수색하였다.

교하시(蛟河市) 송강향(松江乡) 연강 7 대(沿江七队) 대법제자 정숙청(郑淑清)의 집을 비법적으로 수색하다

길림성교하시 송강향 연강 7 대 대법제자 정연전(郑艳全), 녀, 17 세, 길림 기차역전에서 대법 진상 자료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붙잡혔다. 협박과 고문하에서 자료는 그녀의 고모가 준것임을 말하게 되었다. 길림성 국가안전국, 길림성 공안국은 교하시 공안국과 교하시 송강향 파출소와 결탁하여

14

중에서 대법제자가 배합하지 않으면 대법제자 몸의 단추를 하나하나 뜯어냈는데 그 태도가 무척 악렬하였다.

길림 문사(文史)출판사에서 대법을 모독하고 학생들을 독해하다

인민교육출판사판 소학교 4 학년 어문 상책 127 페지의 단문짓기에는 대법을 모독하는 내용이 실렸다. 길림성 문사출판사 책임편집은 조위이다.

장춘시 관성구(宽城区) 분진향(奋进乡) 소학교인원이 학생들을 독해하다

4 월 25 일 오후, 장춘시 관성구 분진향 소학교 왕경(王庆)이 2 학년 4 반 흑판에 대법을 비방하는 만화를 그리고 교장 한위양(韩伟洋)이 흑판에 대법을 비방하는 내용을 쓰고 또한 교원 정지진(程志珍)을 지시하여 학생들을 따라 읽히게 함으로써 소학생들을 독해하였다.

장춘시 국보경찰이 나치스 게슈타보(蓋世太保)로 되다

금년이래, 조양구 공안분국의 악경들은 십여 명의 대법제자를 랍치하였으며 대법제자들은 경상적으로 교란을 받고 협집당하며 감시당하였다. 최근, 사악한 국장 관련평 (关连平)은 정위 장춘맹 (张春萌)、부국장 범홍광 (范宏光)、부국장 장홍 (张宏)、

31

등은 관할내 광기(光机) 기숙사 10 동 2 문 105 호실의 대법제자 강수문(姜淑文) (녀, 44 세)을 랍치하고 형사구류를 하였다.

4 월 23 일, 악경 고진위는 또 장춘시 리공대학 숙사 21동1문의 대법제자 과금지(郭金芝)(녀, 54 세)와 위광위 (卫光委) 212 조에 살고 있는 모계란(牟桂兰)(녀, 56 세)을 랍치하고 형사구류를 하였다.

장춘시 관평(寛平)파출소 악경들이 비법적으로 집을 수색하다

2007년 4 월 26 일 저녁 일곱 시경, 길림성 장춘시 관평파출소 세 명의 민경들이 조양구 서개운거리 (西开运街) 대법제자 리월영(李月英)의 집에 뛰여들어 강제적으로 비법 수색하였다.

교하시(蛟河市) 송강향(松江乡) 연강 7 대(沿江七队) 대법제자 정숙청(郑淑清)의 집을 비법적으로 수색하다

길림성교하시 송강향 연강 7 대 대법제자 정연전(郑艳全), 녀, 17 세, 길림 기차역전에서 대법 진상 자료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붙잡혔다. 협박과 고문하에서 자료는 그녀의 고모가 준것임을 말하게 되었다. 길림성 국가안전국, 길림성 공안국은 교하시 공안국과 교하시 송강향 파출소와 결탁하여

14

중에서 대법제자가 배합하지 않으면 대법제자 몸의 단추를 하나하나 뜯어냈는데 그 태도가 무척 악렬하였다.

길림 문사(文史)출판사에서 대법을 모독하고 학생들을 독해하다

인민교육출판사판 소학교 4 학년 어문 상책 127 페지의 단문짓기에는 대법을 모독하는 내용이 실렸다. 길림성 문사출판사 책임편집은 조위이다.

장춘시 관성구(宽城区) 분진향(奋进乡) 소학교인원이 학생들을 독해하다

4 월 25 일 오후, 장춘시 관성구 분진향 소학교 왕경(王庆)이 2 학년 4 반 흑판에 대법을 비방하는 만화를 그리고 교장 한위양(韩伟洋)이 흑판에 대법을 비방하는 내용을 쓰고 또한 교원 정지진(程志珍)을 지시하여 학생들을 따라 읽히게 함으로써 소학생들을 독해하였다.

장춘시 국보경찰이 나치스 게슈타보(蓋世太保)로 되다

금년이래, 조양구 공안분국의 악경들은 십여 명의 대법제자를 랍치하였으며 대법제자들은 경상적으로 교란을 받고 협집당하며 감시당하였다. 최근, 사악한 국장 관련평 (关连平)은 정위 장춘맹 (张春萌)、부국장 범홍광 (范宏光)、부국장 장홍 (张宏)、

31

하여 사악한 길림성 공안청에 의해 2 등공 세번, 3 등공 네번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수하 악경들도 이로 인해 대부분 립공수상(立功受獎) 하였다.

장춘시 사악 610 두목 명단을 폭로

1. 오란(吳蘭), 女, 40 세, 중공사당 장춘시위 상위, 정법위서기이다. 원적은 길림성 부유현 삼차하진(扶余县三岔河镇) 사람인데 길림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사당 공청단 장춘시위 서기직을 부임하였다. 취임 이후 몇 차례나 전시 정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법을 모독하였으며 진압행동을 친히 포치하였다.

2. 왕길(王吉), 남, 57 세, 장춘시 정법위 부서기, 주로 610을 틀어쳤으며 두 손에 피의 빛이 가득하다.

3. 리계원(李繼元), 남, 50 여세, 장춘시 정법위 610 판공실주임, 온 얼굴에 살이 피둥피둥하며 경상적으로 공、검、법、사、안등 부문을 독촉하여 대량적으로 대법제자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외계에서는 이 악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적다.

장춘시 제 1 자동차 원금정(原錦程)파출소 악경 조량(趙亮)의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폭로

악경 조량, 중등체구. 금년 36, 37 세, 키 1.70 메터 좌우. 2001 년 대법제자를 체포하고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법제자들을 체포하는 과정

30

2007 년 5 월 2 일 오전 10 시경, 여러명의 경찰들이 세대의 차를 끌고 교하시 송강향 연강 7 대 정수청의 집으로 가서 비법적으로 수색하였는데 오후 2 시경에야 떠나갔다. VCD 한대, 두 권의 대법서적, 40 원의 현금 등을 빼앗아 갔는데 자세한 정황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사평(四平市)시 한 학원이 장춘에서 사평 악경들에게 립치당하다

사평의 성이 리씨인 한 학원이 장춘에서 일(기와공)을 하다가 2007 년 4 월 30 일 좌우 사평에서 온 악경들에게 립치당하였다.

서란시(舒兰市) 개원향(开原乡) 대법제자 손해림(孙海林) 이 립치당하다

2007 년 4 월 23 일, 길림성 서란시 개원향 5 적촌(五滴村) 대법제자 손해림이 개원향 610(량자옥 梁子玉이 거느림)과 당시 파출소 악경들에 의해 립치당하였다.

장춘시 여러명의 녀 대법제자가 파출소 경찰들에게 립치당하다

대략 일주일전, 장춘시 통화로 584 호 맞은켠 층집 우전숙사 2 층에서 오후 두 시 남짓하여 4, 5 명

15

하여 사악한 길림성 공안청에 의해 2 등공 세번, 3 등공 네번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수하 악경들도 이로 인해 대부분 립공수상(立功受獎) 하였다.

장춘시 사악 610 두목 명단을 폭로

1. 오란(吳蘭), 女, 40 세, 중공사당 장춘시위 상위, 정법위서기이다. 원적은 길림성 부유현 삼차하진(扶余县三岔河镇) 사람인데 길림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사당 공청단 장춘시위 서기직을 부임하였다. 취임 이후 몇 차례나 전시 정법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법을 모독하였으며 진압행동을 친히 포치하였다.

2. 왕길(王吉), 남, 57 세, 장춘시 정법위 부서기, 주로 610을 틀어쳤으며 두 손에 피의 빛이 가득하다.

3. 리계원(李繼元), 남, 50 여세, 장춘시 정법위 610 판공실주임, 온 얼굴에 살이 피둥피둥하며 경상적으로 공、검、법、사、안등 부문을 독촉하여 대량적으로 대법제자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외계에서는 이 악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적다.

장춘시 제 1 자동차 원금정(原錦程)파출소 악경 조량(趙亮)의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폭로

악경 조량, 중등체구. 금년 36, 37 세, 키 1.70 메터 좌우. 2001 년 대법제자를 체포하고 박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법제자들을 체포하는 과정

30

2007 년 5 월 2 일 오전 10 시경, 여러명의 경찰들이 세대의 차를 끌고 교하시 송강향 연강 7 대 정수청의 집으로 가서 비법적으로 수색하였는데 오후 2 시경에야 떠나갔다. VCD 한대, 두 권의 대법서적, 40 원의 현금 등을 빼앗아 갔는데 자세한 정황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

사평(四平市)시 한 학원이 장춘에서 사평 악경들에게 립치당하다

사평의 성이 리씨인 한 학원이 장춘에서 일(기와공)을 하다가 2007 년 4 월 30 일 좌우 사평에서 온 악경들에게 립치당하였다.

서란시(舒兰市) 개원향(开原乡) 대법제자 손해림(孙海林) 이 립치당하다

2007 년 4 월 23 일, 길림성 서란시 개원향 5 적촌(五滴村) 대법제자 손해림이 개원향 610(량자옥 梁子玉이 거느림)과 당시 파출소 악경들에 의해 립치당하였다.

장춘시 여러명의 녀 대법제자가 파출소 경찰들에게 립치당하다

대략 일주일전, 장춘시 통화로 584 호 맞은켠 층집 우전숙사 2 층에서 오후 두 시 남짓하여 4, 5 명

15

이 파출소 경찰들에게 랍치당했는데 랍치된 이들은 모두 녀성들이였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장춘 대법제자 강려견(姜丽娟)、무군(武军)이 악경들에게 랍치당하다

장춘시 동잠(东站)파출소 악경 서소파(徐晓波)、리홍군(李洪军)이 2007년 5월 7일 월요일 오후 세시경, 대법제자 강려견의 집에 뛰여들어 강려견을 랍치하였다. 2007년 4월 29일에는 대법제자 무군을 랍치하였다.

장춘시 대법제자 공숙영(龔淑英)이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판결을 받다

장춘시 대법제자 공숙영, 女, 58세, 3월 14일 오후 집에서 맹가툰(孟家屯) 파출소 악경 엽변군(叶边军) 등에게 랍치당하여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비법적으로 길림성 녀자로교소 제 6 대대에 갇혀있다.



유수시(榆树市) 대법제자 리연파(李艳波)가 비법적으로 로동교양판결을 받다

길림성 유수시 대법제자 리연파, 女, 2007년 4월

16

하게 『파룬궁 인원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룬궁 인원은 억울해도 별수가 없다. 파룬궁 인원에 대해서는 도리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 상급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 안전의 행정 재심의에 대하여 일률로 접수 심리하거나 입안할 필요가 없다.』고 밀하였다.

길림시 공안국 행동기술지대 지대장 왕효동 (王晓东)의 범죄사실

왕효동, 남, 44세, 1983년 공작에 참가하고 2003년 행동기술 지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악경의 상세한 정황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가 수하들을 거느리고 하는 일은 전부가 비밀하고 어두우며 광명정대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대법제자들의 핸드폰, 전화, 컴퓨터를 감시, 감청하며 대법제자와 친척, 친구들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지문과 패스를 감별하며 대법제자를 미행하는데 길림성 공안국 국보지대를 배합하여 랍치한 대법제자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고 그 중 46개 자료점이 그의 직접적인 지휘하에서 파괴당하였는데 비법으로 몰수한 컴퓨터, 전화, 복사기, 프린터 등 물품만 해도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 악도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특별히 힘을 쓰므로



29

이 파출소 경찰들에게 랍치당했는데 랍치된 이들은 모두 녀성들이였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장춘 대법제자 강려견(姜丽娟)、무군(武军)이 악경들에게 랍치당하다

장춘시 동잠(东站)파출소 악경 서소파(徐晓波)、리홍군(李洪军)이 2007년 5월 7일 월요일 오후 세시경, 대법제자 강려견의 집에 뛰여들어 강려견을 랍치하였다. 2007년 4월 29일에는 대법제자 무군을 랍치하였다.

장춘시 대법제자 공숙영(龔淑英)이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판결을 받다

장춘시 대법제자 공숙영, 女, 58세, 3월 14일 오후 집에서 맹가툰(孟家屯) 파출소 악경 엽변군(叶边军) 등에게 랍치당하여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1년 판결을 받았다. 현재 비법적으로 길림성 녀자로교소 제 6 대대에 갇혀있다.



유수시(榆树市) 대법제자 리연파(李艳波)가 비법적으로 로동교양판결을 받다

길림성 유수시 대법제자 리연파, 女, 2007년 4월

16

하게 『파룬궁 인원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룬궁 인원은 억울해도 별수가 없다. 파룬궁 인원에 대해서는 도리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 상급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 안전의 행정 재심의에 대하여 일률로 접수 심리하거나 입안할 필요가 없다.』고 밀하였다.

길림시 공안국 행동기술지대 지대장 왕효동 (王晓东)의 범죄사실

왕효동, 남, 44세, 1983년 공작에 참가하고 2003년 행동기술 지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악경의 상세한 정황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가 수하들을 거느리고 하는 일은 전부가 비밀하고 어두우며 광명정대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대법제자들의 핸드폰, 전화, 컴퓨터를 감시, 감청하며 대법제자와 친척, 친구들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지문과 패스를 감별하며 대법제자를 미행하는데 길림성 공안국 국보지대를 배합하여 랍치한 대법제자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고 그 중 46개 자료점이 그의 직접적인 지휘하에서 파괴당하였는데 비법으로 몰수한 컴퓨터, 전화, 복사기, 프린터 등 물품만 해도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 악도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특별히 힘을 쓰므로



29

5 도강진(二道江区五道江镇)에 위치하여 있으며 99년 7.20 이전에 법을 얻었다. 2004년 9월, 당당민경이 그의 집에 왔다가 전법륜책을 보게 되자 그녀는 곧 악경에게 진상을 이야기 하였다. 악경은 파출소로 돌아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녀를 5도강진 파출소로 랍치하였다. 후에 그녀는 집을 떠나 언니의 집에 머물다가 부주의로 다리가 골절되었다. 그 기간 불법인원들은 두 차례 그녀의 언니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붙잡아서 박해를 감행하려 하였다. 진지영은 집에 돌아온후 줄곧 침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파출소에서는 그래도 찾아와 줄곧 2007년 2월 11일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란하였다.



恶人
.....
善恶
有报
.....
恶行

길림성 공안청 응소과(应诉科) 과장 양전풍
(杨殿风)을 폭로

길림성 공안청 행정재심 응소과는 길림성 공안청(신발로 806호)(新发路)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응소과 과장은 양전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산당의 류망언론에 완전히 머리를 씻기여 파렴치

5 도강진(二道江区五道江镇)에 위치하여 있으며 99년 7.20 이전에 법을 얻었다. 2004년 9월, 당당민경이 그의 집에 왔다가 전법륜책을 보게 되자 그녀는 곧 악경에게 진상을 이야기 하였다. 악경은 파출소로 돌아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녀를 5도강진 파출소로 랍치하였다. 후에 그녀는 집을 떠나 언니의 집에 머물다가 부주의로 다리가 골절되었다. 그 기간 불법인원들은 두 차례 그녀의 언니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붙잡아서 박해를 감행하려 하였다. 진지영은 집에 돌아온후 줄곧 침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지만 파출소에서는 그래도 찾아와 줄곧 2007년 2월 11일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란하였다.



恶人
.....
善恶
有报
.....
恶行

길림성 공안청 응소과(应诉科) 과장 양전풍
(杨殿风)을 폭로

길림성 공안청 행정재심 응소과는 길림성 공안청(신발로 806호)(新发路)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응소과 과장은 양전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산당의 류망언론에 완전히 머리를 씻기여 파렴치

28일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판결을 받았다.

무송현(抚松县) 대법제자 리종운(李宗运)、 윤군(尹军)이 비법적으로 수감당하다

길림성 무송현 부춘하(浦春河) 대법제자 **리종운**은 사악이 파룬궁을 박해한 아래 줄곧 집을 떠나 떠돌아 다녀 년로한 부모님과 어린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2004년 악인에 의해 비법적인 판결을 받고 사평석령(四平石岭) 감옥에서 계속 박해를 받았다. 금년 5월 27일은 리종운이 응당 집으로 돌아와 친인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지만 무송현 당시의 사악한 공안국, 610 등 부문에서는 리종운을 사평석령 감옥으로부터 당시 공안국에 가두고 진일보의 박해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

그 외, 비법적인 판결을 받고 길림성 흑취자 감옥에 갇혀있던 길림성 무송현 대법제자 **윤군**도 돌아오는 6월 9일이면 집으로 돌아와 친인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통현(伊通县) 이통진 대법제자 배옥화(裴玉华)가 랍치당하다

길림성 이통현 이통진 문가툰(门家屯) 대법제자 **배옥화**는 2007년 4월 11일 저녁 국보대대 악경들에 의해 집에서 랍치당하고 그날 저녁 국보대대 악경들의

28일 비법적으로 로동교양 판결을 받았다.

무송현(抚松县) 대법제자 리종운(李宗运)、 윤군(尹军)이 비법적으로 수감당하다

길림성 무송현 부춘하(浦春河) 대법제자 **리종운**은 사악이 파룬궁을 박해한 아래 줄곧 집을 떠나 떠돌아 다녀 년로한 부모님과 어린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2004년 악인에 의해 비법적인 판결을 받고 사평석령(四平石岭) 감옥에서 계속 박해를 받았다. 금년 5월 27일은 리종운이 응당 집으로 돌아와 친인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지만 무송현 당시의 사악한 공안국, 610 등 부문에서는 리종운을 사평석령 감옥으로부터 당시 공안국에 가두고 진일보의 박해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

그 외, 비법적인 판결을 받고 길림성 흑취자 감옥에 갇혀있던 길림성 무송현 대법제자 **윤군**도 돌아오는 6월 9일이면 집으로 돌아와 친인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통현(伊通县) 이통진 대법제자 배옥화(裴玉华)가 랍치당하다

길림성 이통현 이통진 문가툰(门家屯) 대법제자 **배옥화**는 2007년 4월 11일 저녁 국보대대 악경들에 의해 집에서 랍치당하고 그날 저녁 국보대대 악경들의

엄중한 박해를 받은 후 구류소에 갇혀 있다. 배옥화는 시종 단식으로 비법적인 수감에 항의하고 있다. 2007년 4월 25일, 사악은 배옥화를 구류소로부터 이통 간수소로 전의 시키고 배옥화에게 비법적인 판결을 내려 진일보로 박해하려 망상하고 있다.

장춘대법제자 손건(孙建)이 비법적인 로동교양 판결을 받고 사평시 대법제자 맹상신(孟祥臣)、류홍화(刘兴华)가 랍치당하다

2007년 5월 4일 저녁, 길림성 사평시 대법제자 맹상신、류홍화가 리수(梨樹) 악인들에게 랍치당한 후 행방이 불명하다. 내막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세한 정황을 제공하기 바란다.

길림성 근래 감옥、로교소、간수소 등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한 정황

임희상(任喜常)이 조양구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정신이상에 걸리다

장춘시 대법제자 **임희상**은 세 차례 랍치되어 조양구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근래 참혹한 박해로 인해 정신이상에 걸렸다.



18

나중에 로교소에서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악인들은 나를 데리고 돌아와 다음날 또 비법적으로 장춘시 공안병원으로 압송하였다. 며칠 후 비법적으로 장춘시 조양구 로교소로 보내여 박해를 계속하였다.

공주령감옥에서 대법제자 가족의 면회를 방해하다

길림성 공주령 감옥에서 대법제자 가족의 접견에 대해 강제적인 규정을 내렸는데 가족에서 필시 당지 610이 발행한 증명을 내놓아야만 접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지역 610에서는 증명을 떼는 것이 특별히 번거로운데 수많은 령도를 찾아 서명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명을 떼주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아예 증명을 떼주지 않는다는 말로는 상급의 610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많고 많은 번거로운 관문이 있는데 아주 괴상하다.

길림성 근래 박해로 사망된 파룬궁 학원의 소식

통화시(通化市) 진지영(陈志英)이 박해를 받아 사망
진지영, 女, 66 세, 집은 길림성 통화시 2 도강구

27

나중에 로교소에서는 받기를 거절하였다.

악인들은 나를 데리고 돌아와 다음날 또 비법적으로 장춘시 공안병원으로 압송하였다. 며칠 후 비법적으로 장춘시 조양구 로교소로 보내여 박해를 계속하였다.

공주령감옥에서 대법제자 가족의 면회를 방해하다

길림성 공주령 감옥에서 대법제자 가족의 접견에 대해 강제적인 규정을 내렸는데 가족에서 필시 당지 610이 발행한 증명을 내놓아야만 접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지역 610에서는 증명을 떼는 것이 특별히 번거로운데 수많은 령도를 찾아 서명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명을 떼주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아예 증명을 떼주지 않는다는 말로는 상급의 610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많고 많은 번거로운 관문이 있는데 아주 괴상하다.

길림성 근래 박해로 사망된 파룬궁 학원의 소식

통화시(通化市) 진지영(陈志英)이 박해를 받아 사망
진지영, 女, 66 세, 집은 길림성 통화시 2 도강구

27

엄중한 박해를 받은 후 구류소에 갇혀 있다. 배옥화는 시종 단식으로 비법적인 수감에 항의하고 있다. 2007년 4월 25일, 사악은 배옥화를 구류소로부터 이통 간수소로 전의 시키고 배옥화에게 비법적인 판결을 내려 진일보로 박해하려 망상하고 있다.

장춘대법제자 손건(孙建)이 비법적인 로동교양 판결을 받고 사평시 대법제자 맹상신(孟祥臣)、류홍화(刘兴华)가 랍치당하다

2007년 5월 4일 저녁, 길림성 사평시 대법제자 맹상신、류홍화가 리수(梨樹) 악인들에게 랍치당한 후 행방이 불명하다. 내막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상세한 정황을 제공하기 바란다.

길림성 근래 감옥、로교소、간수소 등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한 정황

임희상(任喜常)이 조양구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아 정신이상에 걸리다

장춘시 대법제자 **임희상**은 세 차례 랍치되어 조양구 로교소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근래 참혹한 박해로 인해 정신이상에 걸렸다.



18

2002년 5월, 나는 덕혜시 공안국 형경대의 악도들에게 랍치당하여 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형경대까지 끌려 갔다. 이 악성 랍치사건의 책임자는 공안국 부국장 리금(李金)(현임 정법위 부서기)으로서 그가 전부 횡책하고 원격 조종한 것이다. 박해를 집행한 것은 형경 1 중대의 악경들이였다. 악인 리금은 일개 부국장으로서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였는데 손을 들어 사람을 때렸다. 제지당한 후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가고 변명하였다.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로는 또 이미 퇴직한 국장 동모(董某), 정보파의 장경춘(張慶春)과 갈옥전(葛旭全)、루홍암(劉興岩)등 악경, 그리고 시임 국장인 악도 곽광전(郭廣田)(현임 구태시 공안국 국장)이다. 당시 악인 곽광전은 《나는 너의 천적이다》라고 아우성치면서 손을 들어 매를 대였다.

그날, 나를 비법적으로 간수소에 수감시켰는데 열여덟근짜지 족쇄를 채웠다. 후에 나는 단식하면서 무죄석방을 요구하였는데 악경 두검봉(杜劍峰)과 악의(惡醫) 리아주(李亞洲)에 의해 야만적으로 강제음식 주입을 당하였다.

아흐레 후, 악의 리아주는 덕혜시 중의원에서 일련의 신체가 건강하다는 가짜 증명을 위조하여 박해의 목적에 도달하려고 망상하였다. 비법적으로

 구태시 음마하(饮馬河)로교소로 압송하는 과정중 나는 견결이 배합하지 않았고

26

2002년 5월, 나는 덕혜시 공안국 형경대의 악도들에게 랍치당하여 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형경대까지 끌려 갔다. 이 악성 랍치사건의 책임자는 공안국 부국장 리금(李金)(현임 정법위 부서기)으로서 그가 전부 횡책하고 원격 조종한 것이다. 박해를 집행한 것은 형경 1 중대의 악경들이였다. 악인 리금은 일개 부국장으로서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였는데 손을 들어 사람을 때렸다. 제지당한 후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가고 변명하였다.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로는 또 이미 퇴직한 국장 동모(董某), 정보파의 장경춘(張慶春)과 갈옥전(葛旭全)、루홍암(劉興岩)등 악경, 그리고 시임 국장인 악도 곽광전(郭廣田)(현임 구태시 공안국 국장)이다. 당시 악인 곽광전은 《나는 너의 천적이다》라고 아우성치면서 손을 들어 매를 대였다.

그날, 나를 비법적으로 간수소에 수감시켰는데 열여덟근짜지 족쇄를 채웠다. 후에 나는 단식하면서 무죄석방을 요구하였는데 악경 두검봉(杜劍峰)과 악의(惡醫) 리아주(李亞洲)에 의해 야만적으로 강제음식 주입을 당하였다.

아흐레 후, 악의 리아주는 덕혜시 중의원에서 일련의 신체가 건강하다는 가짜 증명을 위조하여 박해의 목적에 도달하려고 망상하였다. 비법적으로

 구태시 음마하(饮馬河)로교소로 압송하는 과정중 나는 견결이 배합하지 않았고

26

장춘대법제자 임희상은 견결히 대법을 수련하고 전화(转化)를 거절하여 수차례나 악경들에게 체포 되고 구류되어 박해를 받았다. 세차례 모두 조양구로교소로 랍치되어 참혹한 학대를 받았으며 또한 번마다 무리하게 기일을 미루었다. 랍치당한 후 일가로소는 생활래원이 끊어졌으며 경제정황은 궁지에 처하였다. 악경들은 가족이 최저보조금을 받는 수속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그의 불구 안해는 하루 종일 눈물로 얼굴을 씻고 있다. 여러 번이나 유관부문을 찾아 울면서 사람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조양구로교소로 사람을 만나러 갔지만 로교소에서는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박해를 받은 정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며칠 전, 악경들이 갑자기 또다시 집에 들이닥쳐 가족들에게 임희상의 병치료에 쓸 거액의 돈을 내놓으라고 휩박하였다. 그때서야 가족은 임희상이 로교소에서 박해로 말미암아 정신착란이 왔다는 것과 숨이 간들간들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거액의 비용도 가족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태도가 아주 란폭하고 악렬하였다. 가족에서 확실히 돈을 내놓지 못하자 악경들은 돈을 내놓지 못하면 일체 후과를 다 책임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철저한 악당의 강도적 론리이다!

19

장춘대법제자 임희상은 견결히 대법을 수련하고 전화(转化)를 거절하여 수차례나 악경들에게 체포 되고 구류되어 박해를 받았다. 세차례 모두 조양구로교소로 랍치되어 참혹한 학대를 받았으며 또한 번마다 무리하게 기일을 미루었다. 랍치당한 후 일가로소는 생활래원이 끊어졌으며 경제정황은 궁지에 처하였다. 악경들은 가족이 최저보조금을 받는 수속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그의 불구 안해는 하루 종일 눈물로 얼굴을 씻고 있다. 여러 번이나 유관부문을 찾아 울면서 사람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조양구로교소로 사람을 만나러 갔지만 로교소에서는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박해를 받은 정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며칠 전, 악경들이 갑자기 또다시 집에 들이닥쳐 가족들에게 임희상의 병치료에 쓸 거액의 돈을 내놓으라고 휩박하였다. 그때서야 가족은 임희상이 로교소에서 박해로 말미암아 정신착란이 왔다는 것과 숨이 간들간들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거액의 비용도 가족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태도가 아주 란폭하고 악렬하였다. 가족에서 확실히 돈을 내놓지 못하자 악경들은 돈을 내놓지 못하면 일체 후과를 다 책임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철저한 악당의 강도적 론리이다!

19

손숙향(孙淑香)이 조양분국과 시공안국 악경들의 혹형에 시달려 숨이 간들간들하다

2006년 12월, 장춘 대법제자 손숙향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후 장춘 제3간수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또 참혹한 시달림을 받아 숨이 간들간들하다.

2006년 10월 초하루 저녁, 손숙향이 동수의 집을 방문하러 갔다가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악경에 의해 제3간수소로 압송되어 박해를 받았는데 아흐래 후, 손숙향은 이미 숨이 곧 끊어질듯하였다.

두달 후, 손숙향의 신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정황하에서 또다시 홍기가(红旗街) 파출소, 조양분국과 공안국악경들에 의해 비법적으로 체포되어 혹형으로 학대를 받았다. 얼마후 또 그녀를 장춘 제3간수소로 전이하여 박해를 계속 감행하였다.

길립성 장춘시 제3간수소는 대법제자를 박해함에 있어서 지극히 참혹한 곳이다. 제3간수소에 온 이튿날, 손숙향은 곧 강제적인 음식 주입을 당하였다. 동시에 부근 호실에서 들려오는 때리고 욕하는 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은 호실의 사람이 말하기를 악경들이 형사범을 지시하여 이쑤시개로 대법제자의 손톱눈을 찌르거나 비닐봉투를 머리에



손숙향(孙淑香)이 조양분국과 시공안국 악경들의 혹형에 시달려 숨이 간들간들하다

2006년 12월, 장춘 대법제자 손숙향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혹형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후 장춘 제3간수소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또 참혹한 시달림을 받아 숨이 간들간들하다.

2006년 10월 초하루 저녁, 손숙향이 동수의 집을 방문하러 갔다가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악경에 의해 제3간수소로 압송되어 박해를 받았는데 아흐래 후, 손숙향은 이미 숨이 곧 끊어질듯하였다.

두달 후, 손숙향의 신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정황하에서 또다시 홍기가(红旗街) 파출소, 조양분국과 공안국악경들에 의해 비법적으로 체포되어 혹형으로 학대를 받았다. 얼마후 또 그녀를 장춘 제3간수소로 전이하여 박해를 계속 감행하였다.

길립성 장춘시 제3간수소는 대법제자를 박해함에 있어서 지극히 참혹한 곳이다. 제3간수소에 온 이튿날, 손숙향은 곧 강제적인 음식 주입을 당하였다. 동시에 부근 호실에서 들려오는 때리고 욕하는 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은 호실의 사람이 말하기를 악경들이 형사범을 지시하여 이쑤시개로 대법제자의 손톱눈을 찌르거나 비닐봉투를 머리에



흑취자 녀자 로교소에서는 강제적으로 대법제자들에게 장시간의 로동을 시키는데 매일 적어서 14, 15시간의 일을 한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교도원은 책상을 가져다 문 어구에 놓고 지킨다. 매 사람에게 임무를 분배하는데 일을 다하지 못하면 곱대거리(加班)를 해야 한다. 매일 저녁 여덟 시에야 일을 끝내는데 이것은 이른 것이고 때로는 밤 열두 시까지 곱대거리 할 때도 있고 새벽 두시좌우까지 할 때도 있다. 대대에서는 또 매일 로동시간을 거짓으로 꾸며 놓는데 장시간의 로동을 시킨 것이 위에서 검사할 때 발견될 가봐 공작시간을 다 고쳐놓았다. 위에서 검사할 때 보는 것은 전부 가짜이고 또한 범인들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령도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친다.

로교소의 식당도 그럴듯하게 꾸며놓았는데 위에서 검사하러 오면 좀 좋은 것(두부 등)을 하여 령도에게 보이고 오지 않으면 평시에 먹는 것은 아주 차하다. 2006년에 한번은 식당의 가마가 마사져서 밥을 할 수가 없으니 두세번 매 사람에게 아침마다 콩물 한 사발씩 주거나 즉 한 그릇씩 주었는데 돈을 아끼기 위하여 찐빵도 사지 않았다.



대법제자가 덕혜시(德惠市) 공안국에서 받은 박해를 진술

흑취자 녀자 로교소에서는 강제적으로 대법제자들에게 장시간의 로동을 시키는데 매일 적어서 14, 15시간의 일을 한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교도원은 책상을 가져다 문 어구에 놓고 지킨다. 매 사람에게 임무를 분배하는데 일을 다하지 못하면 곱대거리(加班)를 해야 한다. 매일 저녁 여덟 시에야 일을 끝내는데 이것은 이른 것이고 때로는 밤 열두 시까지 곱대거리 할 때도 있고 새벽 두시좌우까지 할 때도 있다. 대대에서는 또 매일 로동시간을 거짓으로 꾸며 놓는데 장시간의 로동을 시킨 것이 위에서 검사할 때 발견될 가봐 공작시간을 다 고쳐놓았다. 위에서 검사할 때 보는 것은 전부 가짜이고 또한 범인들에게 위에서 내려오는 령도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친다.

로교소의 식당도 그럴듯하게 꾸며놓았는데 위에서 검사하러 오면 좀 좋은 것(두부 등)을 하여 령도에게 보이고 오지 않으면 평시에 먹는 것은 아주 차하다. 2006년에 한번은 식당의 가마가 마사져서 밥을 할 수가 없으니 두세번 매 사람에게 아침마다 콩물 한 사발씩 주거나 즉 한 그릇씩 주었는데 돈을 아끼기 위하여 찐빵도 사지 않았다.



대법제자가 덕혜시(德惠市) 공안국에서 받은 박해를 진술

매하구(梅河口) 대법제자 류홍련(劉洪蓮)이 흑취자(黑嘴子)에서 받은 박해

2004년 4월 15일, 길림성 매하구 대법제자 류홍련은 장춘 흑취자 녀자로교소로 전의되어 계속 비법적인 수감을 당하였다. 류홍련은 일찍이 견는것과 앉은 자세등에 배합하지 않아 후지홍(侯志紅)과 장운설(張雲雪)등 악경들에게 여러 차례 욕을 먹고 매를 맞았으며 모욕을 당하였다. 2005년 4월 로교소에서 요구하는 소유의 건강미 체조에 배합하지 않음으로 하여 악경 장운설은 한편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한편으로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면 네가 배상해라!』라고 고함지르면서 전기 몽동이를 잔등에 밀어넣었다. 악경들은 세차례나 그를 눌러놓고 뒤잔등을 감전시켰으며 손과 토시(套袖)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전기 몽동이를 얼굴에 올려 놓고 체조를 하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펍박하였다.

2006년 4월말 류홍련이 소위 전화반에 참가하는데 배합하지 않음으로 하여 악경 필명명(畢明明)은 손과 엉덩이를 감전시켰으며 또한 한편으로 주먹질하고 발로 찼으며 한편으로 『누구한테 밀해도 쓸모가 없다』고 떠들어 대였고 악경 왕려화(王麗華)는 악독한 말로 욕설을 퍼부었다.

24



매하구(梅河口) 대법제자 류홍련(劉洪蓮)이 흑취자(黑嘴子)에서 받은 박해

2004년 4월 15일, 길림성 매하구 대법제자 류홍련은 장춘 흑취자 녀자로교소로 전의되어 계속 비법적인 수감을 당하였다. 류홍련은 일찍이 견는것과 앉은 자세등에 배합하지 않아 후지홍(侯志紅)과 장운설(張雲雪)등 악경들에게 여러 차례 욕을 먹고 매를 맞았으며 모욕을 당하였다. 2005년 4월 로교소에서 요구하는 소유의 건강미 체조에 배합하지 않음으로 하여 악경 장운설은 한편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한편으로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면 네가 배상해라!』라고 고함지르면서 전기 몽동이를 잔등에 밀어넣었다. 악경들은 세차례나 그를 눌러놓고 뒤잔등을 감전시켰으며 손과 토시(套袖)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전기 몽동이를 얼굴에 올려 놓고 체조를 하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펍박하였다.

2006년 4월말 류홍련이 소위 전화반에 참가하는데 배합하지 않음으로 하여 악경 필명명(畢明明)은 손과 엉덩이를 감전시켰으며 또한 한편으로 주먹질하고 발로 찼으며 한편으로 『누구한테 밀해도 쓸모가 없다』고 떠들어 대였고 악경 왕려화(王麗華)는 악독한 말로 욕설을 퍼부었다.

24



씌워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날마다 대법제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손숙향은 참혹한 박해로 일주일간 강박적인 음식 주입을 당한 후 병이 위급해져 공안병원에 보내져 계속 박해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만도 두 차례 구급치료를 받았으며 줄곧 피를 토하고 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으며 심장박동이 170 차/분이었고 목소리는 미약하고 수시로 의식을 잃었으며 줄곧 구급상태에 처하여 시각으로 생명이 위험하였다.

이 정황 하에서 가족들이 사람을 요구하니 시분국 공안병원에서는 사람을 놓아주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하게 했으며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다. 20여일 후, 손숙향이 아직도 숨이 간들간들한 정황하에서 시공안 국에서는 손숙향에게 로동교양 1년반 판결을 내리고 흑취자로교소로 보내었다. 그러나 손숙향이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험함으로 하여 로교소에서 거절하여서 악인들은 손숙향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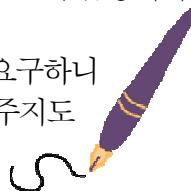
사평(四平) 석령(石嶺) 감옥에서 가족들의 비법적으로 감금된 대법제자에 대한 회견을 가로막다

길림성 사평석령 감옥에서 가족이 비법적으로 감금된 대법제자를 회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근래에 알게 된데 의하면 2007년 설 후, 감옥

21

씌워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날마다 대법제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손숙향은 참혹한 박해로 일주일간 강박적인 음식 주입을 당한 후 병이 위급해져 공안병원에 보내져 계속 박해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만도 두 차례 구급치료를 받았으며 줄곧 피를 토하고 변에서 피가 섞여 나왔으며 심장박동이 170 차/분이었고 목소리는 미약하고 수시로 의식을 잃었으며 줄곧 구급상태에 처하여 시각으로 생명이 위험하였다.

이 정황 하에서 가족들이 사람을 요구하니 시분국 공안병원에서는 사람을 놓아주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하게 했으며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다. 20여일 후, 손숙향이 아직도 숨이 간들간들한 정황하에서 시공안 국에서는 손숙향에게 로동교양 1년반 판결을 내리고 흑취자로교소로 보내었다. 그러나 손숙향이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험함으로 하여 로교소에서 거절하여서 악인들은 손숙향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평(四平) 석령(石嶺) 감옥에서 가족들의 비법적으로 감금된 대법제자에 대한 회견을 가로막다

길림성 사평석령 감옥에서 가족이 비법적으로 감금된 대법제자를 회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근래에 알게 된데 의하면 2007년 설 후, 감옥

21

방면에서는 대법제자들에게 직계 친속의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명단에 없는 그 어떤 사람도 대법제자를 접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옥중의 친인과 가족의 권리를 엄중하게 침범한 것이다. 더욱이 명단 중에 있는 직계 친속이 접견할 때에도 가족이 관심하는 문제, 인신안전이나 신체건강 등에 관련되는 문제를 많이 묻게 되면 감청하는 사악한 주임은 신경과민적으로 이 친속의 접견권리를 취소해 버리고 이것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가족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미 일부 가족의 접견을 정지시켰다.

석령 감옥에서는 경상적으로 각종 리유로 가족의 회견 요구를 거절하며 사사로이 우편물을 뜯거나 압수함으로 하여 피구금자(被拘禁者)의 가정생활권과 정보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가족의 회견은 감옥의 교육과장 진국민(陳國民)이 책임졌는데 모든 가족의 회견은 모두 반드시 접견실의 주임 임려방(任麗芳)이 감금 구에 전화를 걸고 다음 감금구의 교도원이 다시 진국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진국민이 서명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친인을 만날수가 없다. 이 몇해동안 모든 가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자신의 옥중 친인을 회견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그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22



방면에서는 대법제자들에게 직계 친속의 명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명단에 없는 그 어떤 사람도 대법제자를 접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옥중의 친인과 가족의 권리를 엄중하게 침범한 것이다. 더욱이 명단 중에 있는 직계 친속이 접견할 때에도 가족이 관심하는 문제, 인신안전이나 신체건강 등에 관련되는 문제를 많이 묻게 되면 감청하는 사악한 주임은 신경과민적으로 이 친속의 접견권리를 취소해 버리고 이것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가족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미 일부 가족의 접견을 정지시켰다.

석령 감옥에서는 경상적으로 각종 리유로 가족의 회견 요구를 거절하며 사사로이 우편물을 뜯거나 압수함으로 하여 피구금자(被拘禁者)의 가정생활권과 정보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가족의 회견은 감옥의 교육과장 진국민(陳國民)이 책임졌는데 모든 가족의 회견은 모두 반드시 접견실의 주임 임려방(任麗芳)이 감금 구에 전화를 걸고 다음 감금구의 교도원이 다시 진국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일 진국민이 서명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친인을 만날수가 없다. 이 몇해동안 모든 가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자신의 옥중 친인을 회견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그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22



정우현(靖宇县) 위법원 (伪法院) 의 비법적인 심판 이 수포로 되다

4월 27일 오전 8 시 30분, 귀청을 째는듯한 경찰 사이렌 소리(警笛)속에서 랍치된 대법제자 랭복운(冷福云)의 일가 세식구가 위법원의 경찰차에 실려 법원 뒷문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일찍이 준비되어 있던 4~50 명의 공안국 경찰, 사복경찰들이 법원 문 어구에서 사면팔방을 감시하며 계속 악을 행하려고 망상하였다. 이 일을 알게 된 민중(법원 내부 직공들을 포함)들도 이해할수 없어 하였다. 아홉 시가 지나 열시 가까이 되어서야 륙속 2~30 명이 물러갔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야 다 철수했다.

전반 비법심판 과정 중에서 위법원은 줄곧 경계가 삼엄하였으며 참여한 사람은 신분증을 내보여야 했다. 법원내부인원이 투설한데 의하면 당시 법원 대청 꼭대기와 기타 여러곳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여 드나드는 매 사람을 엄밀히 감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악한 공산당의 출개들이 표면상으로는 날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황당해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아낼 수 있다! 비법적인 심판을 받은 대법제자들은 악인들에게 배합하지 않고 진상을 말하고 대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였으며 악당의 박해를 폭로 하였을뿐 비법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23

정우현(靖宇县) 위법원 (伪法院) 의 비법적인 심판 이 수포로 되다

4월 27일 오전 8 시 30분, 귀청을 째는듯한 경찰 사이렌 소리(警笛)속에서 랍치된 대법제자 랭복운(冷福云)의 일가 세식구가 위법원의 경찰차에 실려 법원 뒷문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일찍이 준비되어 있던 4~50 명의 공안국 경찰, 사복경찰들이 법원 문 어구에서 사면팔방을 감시하며 계속 악을 행하려고 망상하였다. 이 일을 알게 된 민중(법원 내부 직공들을 포함)들도 이해할수 없어 하였다. 아홉 시가 지나 열시 가까이 되어서야 륙속 2~30 명이 물러갔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야 다 철수했다.

전반 비법심판 과정 중에서 위법원은 줄곧 경계가 삼엄하였으며 참여한 사람은 신분증을 내보여야 했다. 법원내부인원이 투설한데 의하면 당시 법원 대청 꼭대기와 기타 여러곳에 감시 카메라를 장착하여 드나드는 매 사람을 엄밀히 감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악한 공산당의 출개들이 표면상으로는 날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황당해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아낼 수 있다! 비법적인 심판을 받은 대법제자들은 악인들에게 배합하지 않고 진상을 말하고 대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였으며 악당의 박해를 폭로 하였을뿐 비법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23